

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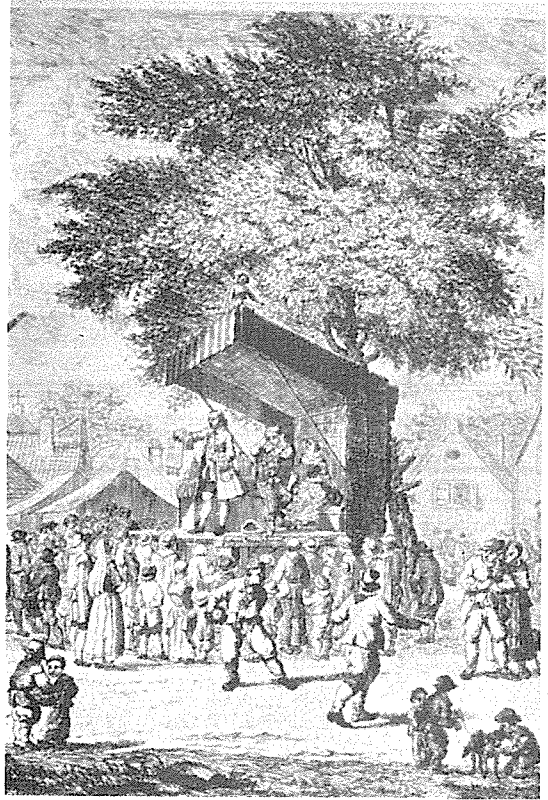
거리의 치과의사

作者 年代 미상

처음 치과 치료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 치료 장소는 행길에서, 좁은 방에서 이루어 졌다.

특히나 17세기 이후에는 거리에서 높은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를 호화롭게 꾸몄으며 무대의 등장 인물도 광대와 같이 분장하였고 치과의사는 호화로운 의상을 입고 위엄을 갖춘 표정을 지었다.

이 그림에서도 도시의 번두리에 그럴듯한 무대를 만들고 호화로운 장식을 하였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이력을 소개하는 치과의사(아직은 돌파리) 광대 조수인듯한 3사람이 무대 위에 있고 구경꾼이 있는 비교적 변화한 장소에 그 당시의 풍물을 볼 수가 있다. 이러한 무대 치과에서 방으로 치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장소로 이행해 갔다.



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

寶 城 合 金

寶城齒科技工所

전화가 바뀌었습니다

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
代表 朴 允 三

☎ (253) 3411 · (255) 3024